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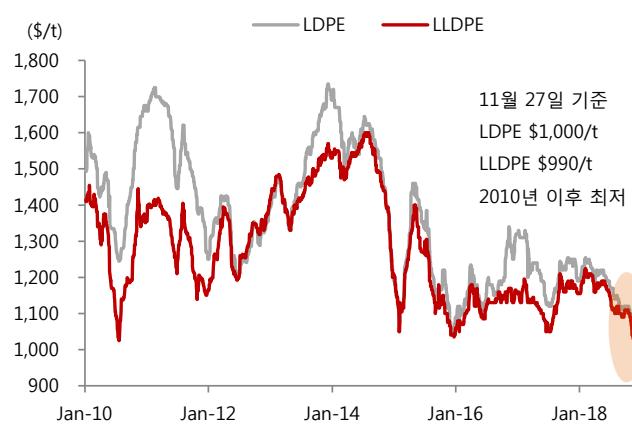
energy snapshot

Analyst. 손 지 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북미 10월 PE 수출 YoY +97.2% = PE 가격 2010년 래 최저치

- ▶ 2010년래 최저치 시현한 亞 PE 가격. 美 PE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무려 +97.2% 급증한 것으로 설명 가능.
- 中 춘절 re-stocking 앞둔 단기반등도 가능하지만, “fundamental = 불황 국면”은 논쟁이 불필요할 정도임

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아시아 PE 가격



자료 : Platts, SK증권

- 지난 27일 아시아 모든 PE의 일간 가격이 약 \$40~50/t 급락했습니다. 그러면서 LDPE와 LLDPE의 경우는 2010년 이후 최저 가격이 형성되었군요
- “그래봤자 유가가 급락했던 2015~16년 상황과 유사한 가격 아니냐”고 반문하실 지 모르지만, 당시에는 유가가 \$30/bbl 이하로 급락하면서 원재료 naphtha 가격도 \$400/t를 하회할 때였습니다
- 지금 naphtha 가격은 \$500/t 수준이니, 사실 spread로 본다면 당시보다 더욱 안 좋은 국면이라고 할 수 있죠
- 다른 제품보다도 PE의 이런 급락은 분위기를 더욱 흥흉하게 만듭니다. 전체 화학 제품 중 약 20%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고, 동시에 지난 호황을 견인했던 아이템이기도 하니까요

미국 10월 PE 수출 전년대비 +97.2%: 충격적인 급증수치

US, Canada producers log higher PE output, sales in Oct

(전략) Combined US and Canadian PE production came to more than 4.055 billion lb in October, up 7.2% from September and **21.2% higher** when compared with last October's final figures. (중략)

Total PE sales, meanwhile, rose to more than 4.136 billion lb in October, up 5.6% for the month and **21.6% for the year**. (중략) Export sales of all grades of PE combined rose to more than 1.272 billion lb last month, up 6.7% from September and **97.2% on the year**.

자료 : Platts, ACC(북미화학협회), SK증권

- 그렇지만 반등 기회를 모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얼마 전 미국화학협회(ACC)는 10월 데이터를 공개했는데, 공급과잉 우려감을 여실히 드러나는 수치를 보였죠
- YoY로 봤을 때 PE의 생산 +21.2%, 판매 +21.6%, 그리고 무엇보다 수출은 무려 +97.2%의 대단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
- 누구나 알듯 이번 불황의 핵심은 美 신증설인데, 물량이 나오니 마니 논쟁하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의 수치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
- 옆 동네 조선에서 현대미포조선이 화학운반선인 MR탱커와 feeder급 컨테이너를 대규모 수주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
- 물론 中 춘절 re-stocking 기대감이 있기에 반등도 가능합니다. 다만 그렇더라도 ‘fundamental = 불황’은 부인 못 할 사실이겠네요
- 통상 화학은 불황 시 적자까지 간다는 걸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

-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-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